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자세

ROTC 통일정신문화원 방 호 엽 박사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한·미·일·중의 보이지 않는 심리전이 진행 중이다. 전쟁의 원칙에 보면 전쟁도 불사하는 자세를 견지해야만 오히려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전쟁억지 논리가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라는 의문을 가져본다. 이제 북한의 핵공격의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이 어떤 상태인가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군사적 작전계획 5015(Operational Plan 5015; OPLAN 5015)는 북한과의 전면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던 작전계획 5027를 개선한 후속 계획이다. 작전계획 5027과 구분되는 것은 북한이 발전시키고 있는 핵과 미사일의 대량살상무기 사용가능성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판단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과 북한지도부 특히 김정은의 “참수작전”개념이 포함되어있다는 점이다.

즉 “킬 체인(Kill Chain)”은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공격한다는 “명백한 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타격 하겠다는 개념을 적용하여 5015작전계획에 반영하였다. 이는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 방법에 어려움이 있어 공격의 명백한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라도 필요하다면 공격하여 파괴시킨다는 예방 차원의 선제타격(Preemptive Attack), 즉 정확한 군사용어로 하면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은 전면전의 전쟁지속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핵 그림자 전략 속에 국지전이나 테러를 적용하여 한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주요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미국국내의 여론을 움직여 한미동맹의 틀을 깨트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여기에 한반도를 불모로 삼아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핵·경제병진전략을 완성하는 개념

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의 공격가능성에 대비하여 핵공격능력을 완성할 수 있는 실험을 막기 위해 군사적 공격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강력한 조치를 감행해 나가고 있다. 지금 북한은 이러한 한미의 대응에 비켜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번 4월29일 새벽에 발사한 KN-17 실험 같은 경우도 미사일 실험에 대한 한미의 선제타격을 방어하는 개념까지 고려하여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는 핵탄두폭발능력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제 선제(예방)타격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Put all options on the table)이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즉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방법이 먼저 중국을 통한 압박으로 북한의 비핵화의지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현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산되었을 경우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선제(예방)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비핵화 노력이 안 될 경우 미국이 직접조치 하겠다고 말한 점이 이러한 점을 고려한 전략이다. 여기에 불안을 느낀 중국이 군사적 공격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뿐이라는 심리전을 쓰고 있는 점을 우리는 잘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감히 전망을 해본다면 북한은 자신들이 목표하고 있는 체제유지에 필요한 핵·경제병진전략의 완성을 위해 미국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실험의 조기완성을 하기 위해 어떠한 압력에도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 사드(THAAD)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능력을 막을 수 있는 대비를 하는 과정이지만 북한의 비핵화의지를 강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킬 체인(Kill Chain)”의 개념을 이제는 북한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북한의 반격의도에 대한 대비필요성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장사정포에 의한 공격을 원천적으로 봉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전력이 지금 한반도에 합류에 있는 칼빈슨호와 같은 핵항공모함전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전략적인 군사적 능력이다. 이러한 전략적 자산을 완비한 상태로 선제공격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수전 세력이다. 이들은 자살특공개념으로 한국의 후방지역에 침투하여 혼란을 조성할 각종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제(예방)공격을 할 때에는 핵미사일 시설뿐만 아니라 특수전 세력의 공격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선제(예방)공격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최초공격에 한미자산의 요격이 불가능한 장사정포의 화력을 일시에 대량으로 서울 등에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을 구사할 것이다. 그리고 병행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전 세력을 이용하여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한미자산이 여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사전 한국에 침투시켜 무력화 하는 방법을 구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전 세력의 자살특공대의 규모는 현재 10만 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들의 2/3만 운영을 하여도 한국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핵 그림자전략에 필요한 핵보유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을 상대로 언제든지 군사적 대응능력이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심리전을 하며 필요시에 한국에 대한 국지전이나 테러를 감행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안불사 난패후회(安不思難敗後悔)가 되지 않도록 지피지기 백전불퇴(知彼知己百戰不殆)의 정신을 가지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킬 체인(Kill Chain)”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